

# “옛 전통과 문화 살리고 싶어 두루마기 입고 책 경매”

## 대인아시장서 조선시대 ‘서괘’ 재연 이향준 전남대 교수

18세기 조선시대에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던 조상들은 책을 읽으며 여가를 보냈다. 책을 빌려주는 가게 ‘세책’(賃冊)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글을 못 읽는 서민들에게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傳奇叟)는 큰 인기를 끌었다. 무엇보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파는 보따리 장사꾼 ‘서괘’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손님이었다.

이미 사라져버린, 생소한 직업인 책 장사꾼 ‘서괘’가 다시 태어났다. 이향준(52)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인예술아시장 ‘간서치(看書癡) 책방’ 행사에서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채 현재 책 경매에 나서 ‘서괘’를 재연하고 있다. ‘간서치’는 수만권의 책을 독파하고 눈병에 걸린 뒤에도 실눈으로 책을 읽어 ‘책만 읽은 바보’로 불린 실학자 이덕무가 자신에게 붙인 말이다.

“서괘는 지금은 사라진 직업입니다. 제가 성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옛 전통과 문화를 온전히 되살릴 수는 없어도 흔적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글날’을 맞아

## 두달에 한번 ‘간서치 책방’서 행사

## 책 저렴하게 판매 수익금 기부

## 책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시범적으로 열렸던 ‘간서치 책방’에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 분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행사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책이 있는 한 책을 팔라 다니겠다’를 신조로,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아 ‘간서치 책방’은 올해 정식 대인예술아시장 ‘별장’ 고정 프로그램이 됐다. 홀수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그에게 있어서도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시장은 물건이 거래되는 곳으로 책을 유통하는 행위도 시장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행사 발상 자



책가 18세기 조선의 문화현상에서 나온 것 이례적이라 흥미롭다”고 말했다.

학자인 그로서는 책을 매개로 시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교수가 아닌 조선시대 서괘의 모습으로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에게

책에 흥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책을 손에 든 아이들이 유독 각별하게 느껴진다”는 그는 이런 소소한 보람 때문에 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귀띔했다.

태어나서 ‘경매’에 참여해본 적도 없는 이 교수가 ‘경매사’를 맡는다는 게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분위기를 주도해나간다. 기증받은 책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기부하고 있어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약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진짜 ‘서괘’를 구상하고 있다. 작은 손수레에 책을 싣고 방문객들은 물론, 주변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을 찾아가 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경매를 여는 것이다.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든 특정 시기 일정량의 독서경험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미래와 여생을 위해서도 배울 수 없는 부분이지요.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김영삼 동아기술공사회장 빛고을장학금 1000만원

김영삼(사진 왼쪽) (주)동아기술공사 회장이 지난 7일 광주시에 빛고을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모두 장학금 53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빛고을장학재단을 통해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영삼 회장은 “광주청년과 청소년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장현 시장은 “장학금 기탁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훌륭한 자양분이 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해 2002년 확대 개편된 빛고을장학재단은 그동안 모두 3878명에게 2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기아차 광주공장, 사회적 약자 지원 1000만원 기탁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사진 왼쪽)이 범죄 피해자와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년 연속 후원 활동을 펼쳤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7일 범죄 우려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

기에 써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정



사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동해안 시인’ 문단 최고령 황금찬 시인 별세

현역 문인 가운데 최고령으로 활동해 온 원로시인 황금찬이 지난 8일 강원 횡성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1918년 강원 속초 출생인 황금찬 시인은 일본 다이도(大同)학원 유학 이후 강릉농고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1948년 월간 ‘새사람’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51년 강릉에서 ‘청포도’ 동인을 결성했고 이듬해 청록과 시인 박목월의 추천을 받아 ‘문예’로 등단했다. 올해로 시력 66년째였다.

1965년 ‘현장’을 시작으로 ‘오월나무’,



‘나비와 분수’ 등 시집 39권을 펴냈다. 시인은 항토적 정서나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서정시부터 현실에 대한 지적 성찰이 담긴 작품까지 8000 편이 넘는 시와 수필을 썼다. 가난에 허덕이던 겨레의 슬픔을 형상화한 ‘보릿고개’가 널리 읽혔다.

‘동해안 시인’으로 불린 고인은 오랫동안 해변시인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 ‘DJP연합’ 주역 김용환 한국당 상임고문 별세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이뤄냈던 김용환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경제관료 출신인 김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충청남도 대천·보령에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16대 총선까지 4차



레 연속 당선됐다. 특히 자민련 사무총장이던 1997년 대선에서 DJ와 JP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주도했다.

김 상임고문은 이후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를 도왔다.

/연합뉴스

## 광주시핸드볼협회-무지개병원 업무 협약



광주시핸드볼협회(회장 유석우)와 무지개병원(원장 정순인)은 지난 7일 광주시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시핸드볼협회 제공>

## 김환옥 광주일보 차장

## 한국신문협회사상 수상

김환옥 광주일보 독자서비스국 차장이 ‘2017년 한국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

김 차장은 지난 6일 열린 ‘제61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신문 독자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신문협회를 받았다.

김 차장은 판매업무를 담당하며 광주·전남·북지역 최일선에서 광주일보의 판매확장과 보급 효율화에 기여해 2007년과 2014년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임성철 조선대병원 교수

## 마르퀴즈 후즈후 평생공로상

임성철 조선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논문 저술과 학회 발표 등의 활발한 연구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마르퀴즈 후즈후 2017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임 교수는 조선대를 거쳐 충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텍사스대학 MD앤더슨암센터에서 유방병리학 및 세포병리학을 연수했다. 현재 조선대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체유래물은행장’으로 내성 암 세포주 은행 설립 및 내성 관련 유전자 기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동장 박종현)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마을신문이 창간됐다. 지난 5일 창간한 ‘행복어울림’은 나눔에 앞장서는 이웃,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민들이 취재, 기사 작성 등에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다. 수완중학교, 성당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자로 참여했다. 신가동주민센터가 지난 1월부터 신문 제작·기획, 학생 기자들에게 글쓰기 교육 등을 실시해 마을신문

제작을 뒷받침했다. 학생들의 신문 제작을 도운 김맹엽 마을플래너는 “학생들이 마을을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됐다”며 “더 많은 주민이 ‘행복어울림’ 제작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가동은 ‘행복어울림’ 업그레이드를 위해 주민과 함께 공모사업에 도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복어울림’은 매달 발행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이종행·장미숙씨 차남 건웅(광주 장덕고 교사)군 박재홍·고영희씨 삼녀 찬오(전대사대부고 교사)양=15일(토) 오후 2시20분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서정훈·박명숙씨 장남 범석군 김기석(대호이엔지)·김인옥씨 장녀 수영양=22일(토)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

## 동문회

▲제5회 재광 금일총 동동문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15일(토)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광주 송원대학교 대운동장(우천시 강당), 문의 이경택 사무총장 010-3627-2273.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이정원) 제21회 유은동문 한마음대축제=23일(일) 오전 10시 광주여상 운동장, 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

361-2680.

## 향우회

▲재광 강진도암 향우회(회장 윤재복) 정기총회=15일(토)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피렌체관광호텔 2층 연회장, 문의 사무총장 김재철 011-625-0114.

## 종친회

▲경주배씨 광주종친회(회장 배경석) 시조 문양공 추양대제봉행 대총회 안내=18일(화) 낮 12시 경북 경주시 남간길 87(탑동 830-1) 시조사당 경덕사, 광주 동부경찰서 인근 오전 7시 출발, 문의 010-8623-4949.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차·두암·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

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파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푸른길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자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 부음

▲백이완씨 별세 봉인(국방지형정보단수집지원처장)·도인(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기자)·송자(전북은행)씨 부친상 박주용(평화건축철물 대표)·송상호(천일이엔지 대표이사)·오정현(전북도청 소방본부)씨 부장상 유희숙(전북도 경제산업국장)씨 시부상=발인 10일(월) 전주 모악장례식장 101호 063-221-4044.

▲최영수씨 별세 소식(광주까르르스타상무점 대표)씨 부친상=발인 10일(월) 정읍 아산병원 장례식장 063-530-6644.

▲고귀숙씨 별세 강진우씨 모친상=발인 10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8분향소 062-231-8908.

▲문정식씨 별세 병우(서광주농협 조합장)씨 부친상=발인 11일(화) 광주 만평장례식장 101호 062-600-8440, 062-611-0000.

| 201호故김옥순 님(여/78세)                 |                                       | 401호故박만심 님(여/96세)                     |                                       |
|-----------------------------------|---------------------------------------|---------------------------------------|---------------------------------------|
| 子/子婦: 박기열, 홍기/최은영, 기남/양영아, 상기/정옥진 | 子婦: 김경심                               | 子婦: 김경심                               | 子婦: 김경심                               |
| 孫: 박재진, 재운, 정현, 시현, 정서, 시현, 현석    | 孫/孫婦: 양은희/이현우, 이정민/인석, 김문옥/호남, 조은정/현호 | 孫/孫婦: 양은희/이현우, 이정민/인석, 김문옥/호남, 조은정/현호 | 孫/孫婦: 양은희/이현우, 이정민/인석, 김문옥/호남, 조은정/현호 |
| •발인: 4월 11일                       | •장지: 영랑공원                             | •발인: 4월 11일                           | •장지: 영랑공원                             |
| •연락처: 227-4381                    | •연락처: 227-4381                        | •연락처: 227-4381                        | •연락처: 227-4381                        |
| 102호故박창에 님(여/90세)                 |                                       | 102호故박창에 님(여/90세)                     |                                       |
| 子/子婦: 해균/안정자, 영환/양선미              | 子/子婦: 해균/안정자, 영환/양선미                  | 子/子婦: 해균/안정자, 영환/양선미                  | 子/子婦: 해균/안정자, 영환/양선미                  |
| •발인: 4월 11일                       | •장지: 영랑공원                             | •발인: 4월 11일                           | •장지: 영랑공원                             |
| •연락처: 227-4385                    | •연락처: 227-4385                        | •연락처: 227-4385                        | •연락처: 227-4385                        |

**함께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 제길 www.mykumho.com